



# *A+ddict*

문서현 유재훈 이정운 정두용 황채원

## 팀 소개 / 팀명

---



*A+ddict*

[ 앳:딕트 ]

도메인으로 선택한 '중독'

+

에이쁠을 받고자 하는 팀원들의 열망

# Clustering (A+ddict Affinity Diagram)

# Clustering / A+ddict Affinity Diagram

## Who?



타겟 소비자

- 소아(환자)
- 보호자

## How?



관리 수단

- 정보 수집
- 자기 관리

## What?



해결해야 할 Issue

- 당 치료 과정
- 당 예방 과정

# A+ddict

cf) 5주차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영유아 식단 케어(검증) 서비스를 1차적으로 선정,  
추후 영유아 전반의 식습관 토탈 케어 어플리케이션으로의 발전 가능성 확인



**Target (Who)에 집중하고 명확히 해서**  
**How와 What까지 더 뽕족하게 만들어보자!**

# Clustering / A+ddict Affinity Diagram

[Insight]

\*\*소아(환자) - 타 연령대 대비 건강 측면에 취약·예민

\*\*보호자 - 제공자(기업)보다 실사용자(특히, 지인)를 신뢰 & 당뇨 전문가 수준의 많은 지식 要

## 타겟 소비자

### 소아(환자)

소아 당뇨 환자 / 1형·2형 당뇨 / 유전적으로 약한 몸 / 당뇨 고위험군(소아 비만) / 자기 절제 능력 부족 / 당 함유량 높은 음식에 대한 석취 욕구 강함

/ 부모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쉽게 피곤해짐(낮은 체력) / 식이 장애 발생 비율 높음 / 다뇨 / 강한 통제로 인한 스트레스 / 타인(환자가 아닌)에 대한 비교로 인한 좌절감·위축 / 주사에 대한 무서움·싫음 / 따돌림 당함 / 신호등 식이요법·식단 / 시력 저하 발생 가능 (초점) / 간식 선호도 높음 / 자발적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 필수적 / 당뇨 캠프 주기적 참석 / 당뇨 친구에 대한 니즈 / 연속혈당측정기 부착에 대한 부담

### 보호자

높은 WTP / 경제적 부담 / 시간부족(내 생활 부족) / 자녀 식습관·생활관리 / 당뇨 관련 정보 습득 필수 / 불안·우울감 / 당뇨 커뮤니티 의존도 ↑ / 죄책감 / 임신성 당뇨 ⇒ 거대아 가능성 ↑ ⇒ 실제 본인·태아 당뇨로 이어짐 / 당뇨환자(자녀) 교육 필수 / 전조 증상 주기적 확인 / 디지털 친화력 ↑ / 자녀 과잉 보호 / 양육 태도에 대한 고민 / 자녀 식습관의 강한 통제가 필수적 ⇒ 스트레스 / 외식·배달음식 이용 곤란 / 음식 성분 정보에 민감 / (본인도) 당뇨환자 / 저혈당 증세 대비 / 합병증 관리 /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음 / 완치 희망



# Clustering / A+ddict Affinity Diagram

## 관리 수단

### 정보 수집

커뮤니티 성분 분석

#### 웨어러블 기기

- 연속 혈당 측정기

#### 자가점검

- 혈당 체크기
- 혈당 체크 종이

### 자기 관리

섭취 식품 종류 관리

섭취 식품 양 관리

일정 관리

다이어리 작성

규칙적인 운동

습관화

수면패턴 관리

멘탈케어

인슐린 주사·펌프

포도당 캔디·젤리

#### [Insight]

정보 수집 - 커뮤니티 욕구 & 웨어러블 기기 필요성 在

자기 관리 - 생활 및 식습관 개선의 습관화 및 이를 보조할 분석 사이트에 대한 욕구 在

## 해결해야 할 Issue

### 당 치료 과정

성분 정보 접근성이 낮음

식품 당 관련 허위 정보

보조 기구 가격이 비쌈

의사·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음

바람직한 생활패턴·습관 마련이 어려움

우울함

서비스가 많음

체중관리 어려움

### 당 예방 과정

미미한 동기부여

규칙적인 운동의 어려움

식품별 당 계산 어려움

자기관리 어플의 포괄성

체중관리 어려움

바람직한 생활 패턴/습관 마련이 어려움

#### [Insight]

당 치료 과정 -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싶어하는 욕구 在

당 예방 과정 - 규칙적이고 바람직한 생활습관 형성 및 동기부여 필요

A+ddict



2:00 PM

100%



Mapping

# Mapping / 타임라인 지도

## 타겟 & 선정 이유



### 소아(1형 당뇨)

- 1형은 **소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만성적**이기에 완치가 불가하고 **꾸준한 Tracking과 관리**가 필요함
- 2형은 완치가 가능하며 단순한 생활습관·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한 경우가 많음



### 부모

- 1형 당뇨는 **유전적 영향**이 크고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나타나기에 **산모·부모의 도움과 영향이 절대적**임
- 1형 당뇨 소아를 둔 부모는 **자신의 일상에 큰 영향**을 받게 되고 **육체적·정신적·금전적 여건이 어려워짐**

## 타임라인 & 설정 이유

진단 직전

진단

진단 직후

진단 부적응기

당뇨의 일상화

진단을 받기 전에 **전조 증상** 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진단을 받은 직후의 **패닉** 상태와 이에 적응하지 못 하는 시기가 존재할 것이라 판단

진단에 적응하여 당뇨에 일상화된 삶을 사는 시점이 존재할 것이라 판단



# Mapping / 타임라인 지도

	진단 직전 ~ 진단	진단 직후	진단 부적응기	당뇨의 일상화
소아 (1형당뇨)	<p>전조 증상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증과 소변량 및 횟수 증가</li> <li>공복감으로 인한 과식 혹은 비만</li> <li>시야 흐려짐(초점)</li> <li>자연 치유가 느껴짐 및 손발 저림</li> <li>피부 열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갑작스런 생활변화에 당황·두려움</li> <li>못하는 게 많아져서 화가 남 + 일상·신체 변화에 대한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에게 반항적인 태도 보임</li> </ul> </li> <li>심각성 인지 못함 (나 멀쩡한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알아야 하고 해야 할 것이 많아서 귀찮고 힘들</li> <li>당뇨캠프 참석</li> <li>생활이 주변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인지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li> <li>하라는 걸 안 해서 문제가 생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x. 먹지말라는 걸 먹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상태를 수긍·인정</li> <li>의무적으로 할 일들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x. 혈당관리, 인슐린 주사 등</li> </ul> </li> <li>우울감 강화 (but 크게 표출하지 않음)</li> <li>방심해서 생기는 문제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x. 계속 괜찮았으니까 한 번은 안 맞아도 되지 않을까?</li> </ul> </li> </ul>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중 조절을 위한 식단 관리 시도</li> <li>육아 커뮤니티에 증상을 물음</li> <li>병원에 데려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 획득의 창구를 빠르게 찾음</li> <li>신뢰할 수 있는 진단을 위해 여러 병원에 데려감</li> <li>완치 가능성 검색</li> <li>당뇨병 지인에게 연락</li> <li>부모에게 심적 의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의 불안/우울감에 대한 대처 방안 모색 ⇒ 자녀와 잦은 트러블</li> <li>금전적 부담 가중</li> <li>당뇨 커뮤니티 헤비 유저가 됨</li> <li>지속적인 자녀 생활 패턴/식습관 트래킹</li> <li>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내 아이에게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의 일상이 아이의 당뇨 관리에 최적화된 일상으로 변화</li> <li>아이의 일상에 대해 아이와 합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트래킹 방안, 인슐린 주사 방법 등</li> </ul> </li> <li>안정적인 일상이 되었다고 생각하다 갑자기 발생하는 문제상황으로 인한 공포감과 스트레스</li> <li>당뇨 커뮤니티 의존도가 높아지고, 커뮤니티 내 친밀도가 높은 지인들이 많아짐</li> </ul>

[Insight]

전조증상과 성장기 아이의 특성이 유사해서  
인지하기 어렵기에 바로 당뇨 커뮤니티를 찾기보단  
육아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 ↑

진짜 당뇨인지, 현재 자녀가 어떤 상태인  
지에 대한 정보 니즈 발생 (what에 초점)  
+ 부모/자녀의 심적 불안 증세가 극대화

최상의 식습관/생활패턴/치료방안 등을 찾  
기 위한 정보 니즈 발생 (how에 초점)  
+ 개인화된 해결책 모색

당뇨 커뮤니티 습득자에서 제공자까지 역할  
확장 + 당뇨 커뮤니티 내 소속감 극대화

A+ddict



2:00 PM

100% 

# Persona

## Persona / Main Target



이름 문채현  
나이 38살  
성별 여 (女)  
직업 (과거 D 화재 대리)  
현재 가정주부

### Goals & Roles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만큼 활기차게 못 하는 거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다.

### Needs

내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식습관 마련  
가장 품질이 좋고 신뢰할 수 있는 보조 기구 활용  
내 아이와 나의 심적 안정감 모색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 제공



이름 황서원  
나이 7살  
성별 여 (女)  
특징 1형 당뇨병 환자  
4살 발병

# Persona / Main Target



이름 문채현  
나이 38살  
성별 여 (女)  
직업 (과거 D 화재 대리)  
현재 가정주부

## SCENARIO

오늘도 채현씨는 서원이 손에 들린 초콜릿을 내려놓게 하느라 진땀을 뺐다. 서원이는 채현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럽게 울기만 한다.

문득 서원이에게 당뇨라는 병에 대해 설명하던 때를 떠올린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였을까. 임신 초기부터 조심했던 채현씨였지만, 그녀는 아이를 낳기 전 임신 당뇨를 진단 받았다. 그 때부터 시작된 당뇨에 대한 정보 수집은 본인보다는 뱃 속의 서원이를 위한 발악이었다. 부모가 잘 관리하면 임신 당뇨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도 괜찮을 수 있다는 말에 모든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서원이는 4살이 되던 해 1형 당뇨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그나마 주기적으로 검사받으러 병원에 와서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었다고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지만, 그녀에게는 끝도 없는 절망감만이 물려왔다.

일이 인생의 전부였던 채현씨는 만삭 직전까지도 회사를 다닐 만큼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서원이의 당뇨 진단 순간 그녀는 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다. 전업 주부가 된 채현씨가 요즘 느끼는 우울감은 살면서 느껴본 그 어떤 우울감과도 달랐다. 사람을 좋아하는 서원이기에 어린이 집을 계속 보내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서원이를 교사가 충분히 케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가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어린이 집을 그만두게 했다. 대신 서원이와 함께 당뇨 캠프에 주기적으로 참석해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고 있지만, 당뇨 캠프 자체가 자주 열리지 않을 뿐더러, 전국에서 모이는 캠프이기 때문에 어린이 집에 다닐 때처럼 동네 친구를 사귀지는 못 한다.

일도 그만두고, 서원이에게만 전념한 채현씨에게는 이제 의지할 친구들조차 거의 남아있지 않다. 채현씨 스스로 느끼는 우울감을 떨쳐내기 위해 몇 번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해보려 했지만, '내가 놓고 있는 사이 서원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서원이만 생각하는 엄마의 노력이 무색하게, 서원이는 캠프 선생님 얘기만 한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매일 화내는 엄마보단 잘 놀아주고 이해해 주는 캠프 선생님이 좋다고 한다. 어디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만 쌓여가는 채현씨는 남편에게도 차마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가 없다. 채현씨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일반 직장인이던 남편은 퇴근 후 대리 운전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힘든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까지 털어놓는 일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채현씨다.

그런 채현씨는 요즘 네이버 카페 '작은 손의 1형 당뇨'로 힘을 얻는다. 저당 식품이라고 해서 사 먹었는데, 혈당이 급상승해서 고비를 겪었던 경험 이후, 식품 업체의 마케팅을 불신하게 된 그녀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찾고자 이 카페를 찾게 되었다. '작은 손의 1형 당뇨'에서 각기 다른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먹어보니 괜찮았던 음식 종류와 양 등을 공유해 주어서, 이젠 어떤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늘 이 카페에서 확인을 받는다. 나아가 채현씨는 활발한 카페 활동을 하며 알게 된 부모들과 서로 고민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며 그녀는 작게나마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는다. 그러나 네이버 카페에 모든 음식 정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체형/무게/개월수 등의 특징에 따라 먹어도 되는 총량이 달라지는데 익명의 커뮤니티이다보니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해서 이 카페 또한 100% 신뢰할 수 없다. 또, 급하게 음식 정보를 찾아야 하는 순간에는 카페에서 단순 검색 기능만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취득하기가 힘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Persona / Sub Target



이름 정용훈  
나이 41살  
성별 남 (男)  
직업 H 자동차 연구원

### Goals & Roles

내 아이가 다시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 Needs

진짜 당뇨가 맞는지 확인  
지금 아들이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인 상태 정보 취득  
바른 생활습관 마련을 위한 정보 취득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창구 모색  
아이에게 상황 정확히 인지시키기



이름 정재운  
나이 12살  
성별 남 (男)  
특징 2형 당뇨 환자  
올해 진단

# Persona / Sub Target



이름 정용훈  
나이 41살  
성별 남 (男)  
직업 H 자동차 연구원

## SCENARIO

재운이가 어릴 때부터 조금 통통하기는 했어도, 아직 어린 아들이 당뇨 진단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용훈 씨는 아들에게 지금의 삶은 다 키로 가면서 빠진다고 먹고 싶은 것들 다 먹으라는 말을 했던 과거의 자신을 책망한다. 용훈씨는 아들이 잘먹는 모습이 좋았을 뿐인데 식단을 관리해주지 못하고 병을 얻게 한 것이 다 본인 탓은 아닐지 늘 후회하는 요즘이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건강하고 좋은 것만 먹고픈 마음이다.

아들에게 부족한 것 없이 다 해주고 키웠던 용훈씨에게, 먹어도 괜찮은 것과 먹으면 안되는 것을 찾아보는 경험이 낯설기만 하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면 먹을 것을 사서 아들과 함께 야식먹는 것을 즐겨했지만 재운이가 병을 얻고 난 이후로 재운이가 먹고싶은 것도 못 사주니 아들과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재운이의 당뇨 진단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매년 진행하는 학교 건강 검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갔었는데, 5학년이 된 재운이의 소변 검사 수치가 이상하다며 병원에 다녀오라는 학교 측의 연락을 받았을 때조차도 용훈씨는 별 일 아닐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동네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은 2형 당뇨병이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동네에 있는 병원이란 병원은 다 가보고, 당뇨 전문 병원부터 대학 병원까지 총 6차례 방문을 해보고 나서야 '당뇨'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용훈씨는 갑작스러운 재운이의 당뇨 소식에 무작정 검색을 시작하며 정보를 모으고 있긴 하지만, 아직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급히 바꾼 식단으로 재운이가 적응하기도 힘들고, 평소에 식단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어떤 식습관을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 소아당뇨는 모든 음식의 성분을 알고 세심하게 조절이 필요하다던데, 시중에 나와있는 성분표는 걱정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다. 용훈씨는 주변에 당뇨에 걸린 자식을 둔 가족도 지인도 없기에 전문적인 정보를 물어볼 곳도 없다.

용훈씨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수록 마냥 막막하다. 아내는 외국계 기업 G사에서 근무 중인데, 최근 근무지가 미국으로 변경되어 5년 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다. 재운이에 대한 케어가 온전히 자신에게 달려있는 상황 속, 아내는 조심스레 용훈씨의 휴직 혹은 퇴직을 제안한다.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던 길이지만, 재운이를 위해 서라면 당장이라도 회사 따위는 때려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용훈씨다. 다만 이미 당뇨는 발병했는데, 집안일부터 당뇨 환자 도우미 업무까지 당장 배울게 너무 많아 뭐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할까 불안감이 온 몸을 덮친다. 심지어 건강 유지를 위해 주기적인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재운이는 물론 용훈씨까지 살면서 본격적인 운동이라곤 집 앞 편의점 다녀오기 정도밖에 해본 적이 없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게 처음인 이 상황 속, 용훈씨는 자신과 아들을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감사합니다

*A+ddict*

문서현 유재훈 이정운 정두용 황채원